

너는 벽장 밖의 사람인가?

- 한채윤, <어느 비이성애자, 이성애를 묻다>에 덧붙여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다. 아직은 스스로를 이성애자로 생각하고 있는 내가 동성애에 대해,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한채윤의 글을 따라가면서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뭔가 복잡한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났지만 저 밖에서 서성이기만 했고, 내 안에 글로 고이기에는 내가 너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렇다. 앞서 읽은 글에서 본 것처럼 지겨운 변명이지만,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인 나의 무지를 고백하려는 참이다. 뻔뻔스럽게 나는 자유로운 여성주의자이고 그러니 동성애에 대한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 라고 선언할 용기가 없다. 그리고 그건 사실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성소수자’라는 주제를 단 이 세미나에서 ‘비이성애’가 아닌 ‘이성애’를 이야기하는 짓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속았다고 생각할 사람들에게는, 아휴, 정말 이지 미안하긴 개뿔! 헉! 속았지?

당신은 벽장 밖에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주변에 알리는 일을 가리켜 흔히 ‘커밍아웃coming out’이라고 한다. ‘벽장 밖으로 나오다’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동성애자의 ‘해방’을 뜻하지만, 한편으로 이미 이성애자는 벽장 밖에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성애자는 정말 벽장 밖에 있는가? 한채윤의 말대로, 이성애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자신을 쉽게 이성애자로 정체화하고 -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간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이성애자’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끊임없는 의심과 문답의 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마음먹었을 때 ‘벽장 밖으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의심하지 않는 이성애자들이야말로 바로 그 벽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세상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벽장일 것이다. 이 때 커밍아웃은 그 벽장의 존재를 고발하는 행위가 된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이성애자들의 기반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한다.¹⁾

나의 성적체성 의심하기

그러므로 다시 나의 이성애 중심적 사고틀을 열심히 두들겨 보기로 했다. 나 자신은 나를 줄곧 이성애자라고 정체화하고 있었지만, 정말 나는 곧 죽어도 진성 헤테로인가? (대체로 나 혼자만) 파란만장했던 나의 연애사를 돌이켜보면 그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진다. 학창시절의 나는 어떤 여자애들을 좋아했었다. 내 마음만큼 그들이 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아파했고, 다른 애랑 더 친한 것 같으면 죽을 만큼 질투했고, 기대고 싶었고 또

1)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변혜정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2006. 중 한채윤, <벽장 비우기>

보듬어주고 싶었다. 쓰다듬고 싶었고 항상 곁에 있고 싶었다. 그 강렬한 마음들을 단지 우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에는 분명 모자람이 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동성애자일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철모르는 마음일 뿐이고, 내가 여자애들 사이에만 있어서 그렇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고 남자를 알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대학에 와서 남자애들을 만났고 그들 중 몇몇을 좋아했고 또 사귀기도 했다. 그리고 그 여자애들을 잊고 그들을 좋아했던 '미성숙한' 시간들과 결별했다. 그쯤에서 난 '완벽한 이성애자 어른'이 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다 복도 많지, 우연치 않게 멋진 L 언니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완벽한 이성애자 어른'이라는 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어떤 여자애의 손을 잡고 달달하게 연애하는 상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나는 한 사람의 시간 안에도 매 순간 달라지는 수십 가지의 정체체성이 존재한다. 너무나도 압도적인 이성애 담론 안에서, 그 여자애들을 좋아했던 나의 마음들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남자애들을 좋아했던 기억들은 아무 의심 없이 나의 연애사에 당당하게 등록되었던 것처럼, 이성애는 특정한 기억들을 부각하고 어떤 기억들은 깎아내면서 하나의 이성애자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닐까.

이성애에 주목하라!

이쯤에서 잠시 우리의 세미나 주제로 돌아와야겠다. 여기 온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세미나 주제는 '성소수자'이다. 비단 오늘의 세미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주의 세미나에서는 '성소수자' 카테고리들을 항상 마련해 놓고 있다. 성소수자 문제는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보아야 할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이성애 중심주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짧은 5주차 세미나 주제들을 한번 훑어보자. 외모, 연애, 가족, 그리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안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성소수자'라는 주제는 이들과 '따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는 외모 중심주의를 고민하지 않는가? 성소수자에게는 가족 문제가 없는가? 성소수자는 연애하지 않는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 조금 느닷없이 여겨진다면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왜 '성소수자'는 다시 따로 빼내어 설명해야 하는가? 이렇게 성소수자를 다른 카테고리로 묶는다는 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이성애로 묶인다는, 즉 이성애만을 전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소수자를 따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성소수자가 담지하고 있는 특별한 층위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무작렬다이성애와 섞어서 진열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무화시키고 넘어가버리는 것임과 동시에 가능하지도 않은 작전이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단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소수자'를 빼내어 따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 순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는 식으로 다시 이성애 중심적 사고틀로 돌아가 다른 이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흔들리는 좌표들을 매 순간 다시 기록하며, 끊임없이 이성애 중심적인 전제들을 의심해야 하는 게 아닐까.

꼭 참고 미숙한 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보아요! :p